

## 傳奇小說 挿入詩의 미학적 의미

이채경\*

|| 차례 ||

1. 서론
2. 傳奇의 출현 및 전개 양상
3. 挿入詩의 존재 양상과 미학적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傳奇는 중국 唐代의 대표적 서사문학 장르로, 우리나라에서는 羅末麗初에 등장하여 조선시대까지 유행하였다. 전기는 ‘서사’에 ‘서정’이 혼합된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보이며, 특히 삽입시를 이용하여 작품의 서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므로 전기에서 삽입시는 서사 전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전기소설 삽입시의 존재 양상을 분석하고 미학적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그 문학성을 가늠해 보았다.

그 결과, 삽입시의 존재 양상과 미학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를 도발하는 매개로서 재자가인의 고독감을 극복하는 데 일조한다. 둘째, 주인공의 교감을 표출하는 형태로서 독점적 존재의 또 다른 자아 찾기에 기여한다. 셋째, 등장인물 간에 상호 갈등을 확대시키는 소재로서 문제적 인물의 장애요인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된다. 넷째, 주인공의 문예취향을 공유하는 대상으로서 창조적 개인의 서정성 완성에 기여한다. 요컨대 전기에서 삽입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작품에 다채로운 미학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유의 서사 문학성을 확보한다.

주제어 : 傳奇, 삽입시, 도발, 재자가인, 교감, 자아 찾기, 갈등, 장애요인, 문예취향, 서정성 등

### 1. 서론

---

\*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youyoung149@hanmail.net

傳奇는 중국 魏晉時代 志怪의 영향을 받은 唐代의 대표적 서사문학 장르로,<sup>1)</sup> 우리나라에서는 羅末麗初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사 전환기에 당시 문인들은 전기를 새로운 예술양식으로 창출했는데, 전기를 창출한 新羅文人層의 일부는 高麗의 文壇으로 자리 잡았다. 전기 작가는 애정갈등을 주제로 하여 사회모순을 반영하고, 아울러 자신들의 불우한 처지와 불평한 심경을 담아냈다. 그런데 전기의 세계는 인생의 모습 그대로 포착된 것이 아니라 몹시 굴절 반사된 것이다. 따라서 현실이 신비롭게 변형되고 낭만적으로 착색되는데, 이 점이 곧 그 예술적인 특징이기도 하다.<sup>2)</sup>

전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는데,<sup>3)</sup> 본고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논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형택 교수는 說話와 구분되는 전기소설의 특징으로, 작자의 창작성 및 文飾의 가미와 사회현실의 풍부한 반영 등을 언급하였고,<sup>4)</sup> 이후 전기가 지닌 고유한 장르적 특성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박희병 교

1) '傳奇'는 '志怪'에서 변화 발전한 서사체로, 중국 唐나라 때 詩[서정]와 더불어 小說[서사]의 형태로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說話'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학계에서 '전기' 또는 '전기소설' 및 '전기문학' 등으로 불린다.

2) 임형택, 『韓國文學史의 視覺』, 창작과 비평사, 1984. 11-21면 참조.

3)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회연구』 5, 한국한문학회, 1980. 89-104면; 정학성, 「전기소설의 문제」,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253-258면; 정범진, 「당대 전기의 체제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9. 57-78면; 정출현, 「고전소설에서의 현실주의 논의 검토: 15세기 『금오신화』에서 18세기 <김영철전>까지」, 『민족문학사연구』 2, 민족문학사학회, 1992. 104-128면; 이혜순, 「전기소설의 전개」, 『고소설사의 제문제』(성오 소재영 교수 환력기념논총), 집문당, 1993. 221-232면;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민족문학사연구』 7, 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120-140면; 윤재민, 「전기소설의 인물 성격」,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53-67면;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소인호, 『한국 전기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정한국, 『초기 소설사의 형성 과정과 그 저변』, 소명출판, 2005.

4) 임형택 교수는 나말여초의 작품 가운데 <崔致遠>·<調信>·<金現感虎>·<首插石柵> 등은 이미 說話의 단계를 벗어난 傳奇임을 지적하고, 이런 단계의 작품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심도 있게 밝혔다. 전계서(1984) 참조.

수는 역사적 장르로서 전기소설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주인공의 미학적 특질에 있어서 섬세하고 내면적이며 고독한 인간상이 중요한 미학적 표상을 이룬다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sup>5)</sup> 이후에 정환국 교수는 초기 소설의 양식화와 그 서사적 맥락에 대한 지표로써 전기소설에서 삽입시의 미감에 대해 논지를 전개한 바 있다.<sup>6)</sup> 이처럼 전기에서 미학적 특질 내지는 삽입시의 미감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장을 펼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필자는 전기소설 삽입시의 존재 양상과 미학적 의미를 본고의 논제로 삼아, 먼저 傳奇史를 초기(또는 前期)와 전성기(또는 後期)로 나누어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고, 또 전기에서 삽입시를 서사적 흐름에 따라 분류하여 각 대목마다 삽입된 시의 특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傳奇 작품으로 인정되는 나말여초의 <崔致遠>을 비롯하여 최초의 한문소설로 알려진 조선전기 『金鰲新話』에 수록된 <萬福寺樗蒲記>를 거쳐, 이후 조선후기 최고의 전기 작품으로 평가되는 <周生傳>과 <崔陟傳> 및 <雲英傳>에 이르는 작품들을 텍스트로 삼았으며, 각 시기의 주변 작품들을 참고하여 전기소설 삽입시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학적 의미에 대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전기는 ‘서사’에 ‘서정’이 혼합된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보이며, 특히 삽입시를 이용하여 작품의 서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므로 전기에서 삽입시는 서사 전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전기소설 삽입시의 미학적 의미가 선명하게 자리매김 된다면 전기의 문학성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 박희병 교수는 전기소설의 특징에 대해 ‘인물과 시공간적 환경의 내외적 연관성, 주인공의 미학적 특질은 고독한 인간상, 창작의 목적의식에 있어 주제·플롯·개성·문체 등의 구현, 화려한 문어체 한문, 서정적 경사로 시적 응결과 압축미 표현’ 등으로 요약한 바 있다. 전계서(1997) 참조.

6) 정환국, 「전기소설 삽입시의 미감」,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192-219면.

## 2. 傳奇의 출현 및 전개 양상

傳奇'라는 명칭은 唐나라 裴鉞이 溫卷의 형태로 지었다는 소설 <傳奇>에서 유래하여,<sup>7)</sup> 이후 유사한 성격의 작품군을 지칭하는 서사문학 장르로 정착되었다. 후대에 盧迅은 전기가 文飾과 표현을 중시하고 복합적 표현방식을 구사함으로써 높은 예술성을 띠었다고 지적하였다.

전기란 원류가 대개 志怪에서 나왔으나, 文飾을 가하고 波瀾을 확대시켰으므로 성취한 바가 특이하였다. 그 사이에 비록 또한 諷諭에 가탁하여 憂愁를 풀거나 禍福을 말하여 권선징악을 우의하지만, 결국 궁구하는 것은 文采와 意想에 목적이 있었으니, 옛날에 귀신을 전하고 인과를 밝히면서도 이외에 다른 뜻이 없었던 것과는 그 취지가 매우 다르다.<sup>8)</sup>

전기의 문체는 衆體를 구비한 화려한 文語體라고 할 수 있다. 唐代 과거제도 가운데 진사과에 응시한 문인들은 뛰어난 文才로 입신양명을 노리며 考試官이나 유력인사를 찾아가 投卷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 과정에서 詩文의 형태로 시작해 다양한 문학 형식을 갖춘 전기가 출현·선호되었다. 요컨대 唐代의 문인들은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과시하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를 창작했던 것이다.

당대의 과거 응시자들은 먼저 당시 이름난 사람을 통해 자기 성명을 主司에게 알리고 난 뒤 자신이 쓴 작품을 바치고, 며칠이 지나면 또 다시 바쳤는데, 이를 溫卷이라고 했다. 예컨대 <幽怪錄>과 <傳奇> 등이 모두 그것이다. 대개 이러한 등속의 문장은 중체가 갖추어져, 이를 통해 史才와 詩筆과 議論을 볼 수 있

7) 陳師道는 일찍이 『後山詩話』에서 “전기는 당나라 배형이 지은 소설 이름이다.[傳奇, 唐裴鉞所著小說名也.]”라고 하였다.

8) 盧迅, 『中國小說史略』. “傳奇者流源, 蓋出於志怪, 然施之藻繪, 擴其波瀾, 故所成就乃特異. 其間雖亦或託諷諭以紓牢愁, 談禍福以寓懲勸, 而大歸則究在文采與意想, 與昔之傳鬼神因果而外無他意者, 甚異其趣矣.”

다. 진사에 이르면 대부분 시를 지어 예물로 삼았는데,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唐詩 수백 종류가 바로 그것이다.<sup>9)</sup>

전기의 효시는 중국의 張鷟이 지은 <遊仙窟>로 알려져 있는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나말여초의 작품 가운데 『殊異傳』에 실려 있었다는 <崔致遠>에서 그 영향이 확인된다.<sup>10)</sup> 삼국통일 이후 경제적 번영과 문예 부흥기를 맞이하여 신라의 문인들은 차츰 서사문학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나말여초의 과도기적 혼란과 대립 양상을 표출하는 데 기이하고 초현실적인 내용으로 우의적 기능을 강화하였다.<sup>11)</sup> 특히 지식인 계층의 문인들이 전기를 수용하고 향유하며 또 창작하는 데 일조하였다. <최치원>처럼 비교적 안정된 형태의 전기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요컨대 唐代 전기의 유입은 국내 전기 출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전기문학의 전개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고려후기 『三國遺事』에 수록된 몇 편<sup>12)</sup>을 거쳐, 조선전기 『金鰲新話』<sup>13)</sup>는 <최치원>의 맥을 잇는 작품집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

9) 趙彥緯, 『雲麓漫鈔』. “唐之舉人, 先藉當時顯人以姓名達諸主司, 然後投獻所業, 踰數日又投, 謂之溫卷. 如幽怪錄傳奇等, 皆是也. 蓋此等文備重體, 可以見史才詩筆議論. 至進士則多以詩爲贄, 今有唐詩數百種行於世者, 是也.”

10) <최치원>은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방식 및 삼입시의 분위기까지 張鷟이 지은 <遊仙窟>과 유사하여, 唐 傳奇의 영향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實例가 되고 있다. 정환국 교수는 나말여초 전기에 나타난 ‘육망’에 주목하여 <최치원>과 <유선굴>을 나란히 놓고, 이를 ‘불우의 울분과 지우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하였다. (「나말여초 전기의 ‘육망’의 형식화’에 대하여 - 초기소설의 성립과정에 주목하여’, 『한문학보』 11, 2004. 3-29면)

11) 임형택 교수는, “이 역사과정에서 ‘애정갈등~신분갈등’의 이야기들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으며, <최치원>은 바로 이 시대 문인의 고뇌를 그린 내용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전개서(1984) 19면 인용.

12) 『삼국유사』 소재 <調信傳>은 나말여초에 창작되었으며, <白月山兩聖成道記>는 나말여초의 傳奇가 13세기 후반에 수용되고 改作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조신전>에 보이는 ‘꿈’을 통한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깨달음은 조선후기 김만중의 『九雲夢』으로 이어지고, 1947년에는 춘원 이광수에 의해 윤색되어 <꿈>이라는 소설로 발표되었다.

13) 김안로는 일찍이 『龍泉談寂記』에서, “金鰲新話は 대개 기이한 것을 서술하여 뜻

게 될 <萬福寺栲蒲記>를 비롯하여 <李生窺牆傳>·<南炎浮洲志>·<醉遊浮碧亭記>·<龍宮赴宴錄> 등 5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남염부주지>에는 삽입시가 보이지 않는다. 『금오신화』는 비록 초현실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서사적 편폭이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실 모순에 대한 묘사가 확대되었다. 특히 네 작품에서 보이는 삽입시들은 작품 전개의 특수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인물의 내면심리를 표백하는 예술적 장치가 되기도 하며, 정황을 요약하거나 압축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sup>14)</sup> 이어서 나온 『企齋記異』는 『금오신화』보다 작품의 質이나 문제의식이 떨어진다고 평가되지만, 서로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sup>15)</sup>

임진왜란 이후 전기는 다양하게 발전된 면모를 보여준다. 현실 반영이 확대·심화되고, 사실적인 묘사가 더해지면서 인간 내면성에 대해 더욱 진지한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초현실적인 부분이 약화되거나 제거되고, 현실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전체 내용구성 및 전개가 탄탄해지고 기존의 틀을 허무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작품의 편폭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예컨대 먼저 <주생전><sup>16)</sup>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삼각관계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청춘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며 삽입시를 활용해 서술하는 방식 등은 앞 시기 전기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나, 현실적 토대 위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갈등이 전개되는 등 현실세계의 질곡과 갈등을 사실적으로 형상한 점이

---

을 붙였으며, 剪燈新話 등의 작품을 모방하였다.[其書大抵述異寓意, 效剪燈新話等作也.]”라고 말했다. 『금오신화』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 다양한 연구 논문이 나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따로 논하지 않기로 한다.

14) 박희병, 전계서(1997) 88-89면 인용.

15) 『기재기이』 소재 <崔生遇眞記>·<何生奇遇傳>의 경우에는 『금오신화』 소재 <용궁부연록>·<만복사저포기>와 맥이 닿는 것으로 학계에서 논의된다.

16) <주생전>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대표적인 전기 작품으로, <雲英傳>과 <韋敬天傳> 등 유사 작품과 비교된다. 특히 <위경천전>은 임진왜란 발발로 인해 참전하여 연인과 헤어져 조선으로 온 중국인 청년의 사랑을 담아낸 점에서 <주생전>의 모방작으로 알려졌다.

두드러진다. 특히 상호 독점적이던 남녀 주인공 사이에 또 다른 인물이 개입함으로써 애정 구도가 삼각관계를 이루며 서사가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仙花가 俳桃의 詩를 지워버리고 자신의 시를 적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삽입시가 등장하고 있다.

다음 <최척전><sup>17)</sup>에서는 사건의 주변 인물이 보다 다양해졌다. 남녀 주인공의 結緣에서 출발하여 戰亂으로 야기된 일가족의 離散과 再會를 다루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갈등과 현실적 제약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동시에 전쟁의 상흔과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형상하였다. 특히 그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의 역할과 비중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두 대목에 실린 삽입시의 경우, 전체 서사에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끝없는 부부애와 되찾은 행복을 표현하고 있다. 첫 대목에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상호 교감을 드러내고, 다음 대목에서는 서로 재회하는 매개이자 증거로 등장한다.

덧붙여 <雲英傳><sup>18)</sup>에서는 적대적 인물이 부각되면서 서사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하겠다. 작품은 宮女인 운영과 젊은 儒生인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을 통해 중세적 이념과 사회질서의 반인륜적 측면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서 김진사의 노비인 特은 매우 간사한 인물로, 주인을 속여 운영의 재물을 탈취하고 쾌악한 짓을 저지르다가 결국 함정에 빠져 죽는다. 그런데 작품에서 보이는 삽입시는, 안평대군의 궁녀들[운영 포함]이 지은 5言 絶句를 비롯하여 남녀 주인공이 주고받는 서신에 동봉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더구나 긴 편폭의 서사 속에 담긴 19편에 이르는 삽입시는 우리나라 전기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양상이다.

대략 살펴보건대, 나말여초 <최치원>에서 출발한 전기의 흐름은 19세기를

17) <최척전>은 전란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전기 작품으로, <金英哲傳>과 <姜虜傳> 등 유사 작품에 비해 분량도 많고 문학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철전>은 강홍립 부대의 일원으로 출정했던 조선인 병사의 인생역정을 그렸으며, <강로전>은 강홍립을 부정적인 인물로 내세워 당시 조선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였다.

18) <운영전>은 <주생전> 및 <최척전>과 더불어 전기 작품의 명편으로 손꼽힌다. 여성이 작중 화자로 등장하며, 다양한 등장인물의 詩와 풍부한 심리 묘사 등을 통해 중세적인 억압에서 인간 감정의 해방을 긍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전후한 <沈生傳>에 이르러 마무리된다. 양반자제 심생과 中人 처녀의 사랑 이야기는 결국 신분갈등으로 인해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모두 죽음에 이르는 내용을 담아낸다. 서사 구조상 인물 형상은 물론 전개 방식이 이전 시기 작품들보다 제한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대 전통적 가치관으로서 ‘孝’나 ‘문벌의식’ 등을 내세워 신분갈등의 질곡을 문제시하고 폐쇄적 사회를 고발한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심생전>에서는 삽입시가 보이지 않으며, 처녀가 죽기 전에 심생에게 보낸 遺書가 등장할 뿐이다.

지금껏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초기(또는 前期) 및 전성기 작품일수록 삽입시의 빈도가 높고 서정성이 강하다. 전기는 장르관습상 삽입시가 들어가고,<sup>19)</sup> 그 존재 양상도 다양했는데,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면서 서정적·감상적인 비극성을 구현하는 의미를 지녔다. 특히 남녀 주인공 사이에 문예취향을 공유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마저도 後期로 갈수록 삽입시의 빈도가 차츰 낮아지게 된다. 또 서사적 상황에서 복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sup>20)</sup> 남녀 주인공의 내면을 대변하는 데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점점 서정적 기능이 약화되거나 간혹 삽입시의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작품도 등장하게 된다. 더구나 綱常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戰亂 중에 여성의 貞操라든가 도덕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창조적 개인의 서정성을 완성하고 문예취향을 공유하는 특징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3. 插入詩의 존재 양상과 미학적 의미

19) 임형택 교수는 “전기소설 <최치원>에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한시를 주고받으며, 또 한시를 구성의 일부로 사용해서 분위기를 살리는 수법을 쓴 것도 당시 문인들 사이에 보급된 한시의 취미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하였다. 전개서(1984) 24면 인용.

20) <최척전>에서는 앞서 최척 부부가 주고받은 詩 가운데 옥영이 지은 시가 뒤에 한번 더 등장한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시가 앞에서는 두 사람의 돈독한 애정을 표현한 반면, 뒤에서는 헤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전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로 서사의 중간에 들어간 삽입시를 꼽을 수 있다. 본문에서 한창 서사가 진행되다가 詩·詞·편지[書]·祭文 등이 삽입된다. 전기적 인간은 운명적 대상을 만나면 자신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장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남녀 주인공은 서로 만나 詩를 주거나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내면적 갈등이 심하며,<sup>21)</sup> 이후 주변 인물과 갈등을 빚게 되더라도 무엇보다 애정을 중시한다. 갈등상황 중 자신들의 애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로 시를 주고받으며, 이는 남녀 주인공 사이에 문예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애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경향을 보인다.<sup>22)</sup>

전기의 서사 전개를 내용상 분류해보면, 현대소설의 전개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내용의 흐름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삽입되는 詩를 우선 도입시·교감시·갈등시[이별시]·결말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sup>23)</sup> 본장에서는 서사 장르에 속하는 전기에서 서정적인 부분으로 가미된 삽입시의 존재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미적 특질을 밝히고, 아울러 미학적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 3.1. 도발의 매개 - 才子佳人的 고독감 극복

21) 윤재민 교수는 전기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의 애정갈등은, 비교적 한미한 가문의 인물로 선정된 남자 주인공들에 비해 여자 주인공들의 신분이 이들보다 높고 다양한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계서(1995) 참조.

22) 전기에서 자신의 문예적 재능을 발휘하여 현달한 인물은 <何生奇遇傳>에 등장하는 何生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남녀 주인공은 대부분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이러한 재능이 立身揚名보다는 자기 배필을 구하는 데 고스란히 활용된다.

23) 이는 정환국 교수가 <만복사저포기>의 서사구조를 ‘도입시·교감시·이별시·장가’로 파악한 것을 참조하여 필자가 본고의 텍스트 작품들에 적용시켜 분류한 것이다. 전기소설의 삽입시는 대부분 ‘도입시·교감시·갈등시[이별시]·결말시’ 순으로 구성되며, 본장에서 분석하는 삽입시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전계서(2005) 참조.

전기에서 남녀 주인공은 대부분 才子佳人으로 설정된다. 이들은 무엇보다 愛情과 信義를 중시하며 상호 독점적 관계를 유지하나, 운명적 만남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내재된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配匹을 찾거나 심지어 魂鬼를 만나기도 하는데, 이 준비된 사랑 앞에 상대를 도발하고 雲雨之樂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삽입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sup>24)</sup>

다음은 <최치원>에 보이는 첫 삽입시로, 최치원이 雙女墳 앞에서 혼귀를 부르는 대목에 등장한다.

誰家二女此遺墳	누 집 두 처녀인지 여기 무덤에 남겨져
寂寂泉扃幾怨春	적막한 황천길 얼마나 봄을 원망했으리오.
形影空留溪畔月	모습과 그림자 시냇가 달에 헛되이 남았는데
姓名難問塚頭塵	姓名은 무덤 곁 먼지에도 물어보기 어렵구나.
芳情儻許通幽夢	꽃다운 정 그윽한 꿈에서 통하길 허락한다면
永夜何妨慰旅人	긴 밤 나그네를 위로하는 게 어찌 허물이리오.
孤館若逢雲雨會	외로운 客官에서 雲雨之情을 만난다면
與君繼賦洛川神	그대와 계속해서 洛神賦를 지으리라. <sup>25)</sup>

이 작품은 최치원과 두 귀녀[八娘·九娘]의 만남과 이별을 내용으로 하는 초현실적 神異談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사람과 귀녀가 하룻밤 만남 뒤에 영원

24) 전기적 인물은 대개 재자가인으로 설정되는데, 이들은 높은 문학적 감수성을 지니고 자신의 정서를 세심하게 포착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전기에서 보이는 삽입시가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25) 작자미상, <최치원>. 본고에서 제시하는 인용문은 박희병 교수가 편찬한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소명출판, 2005.)에 실린 원문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이하 출처는 페이지만 기재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상계서 60면

26) 임형택 교수는 「羅末麗初의 傳奇文學」에서, “傳奇라는 용어가 그렇듯, 그 작품 세계는 불합리, 전설적인 神異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식은 기본적으로 합리성의 바탕을 잃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였다. 전계서(1984) 22면 인용. 이에 적합한 실례로는 <최치원>에서 최치원이 자신을 위로하며 지은 長歌에서 ‘다시 심사를 다잡고 혼귀를 그리워하지 말자.’고 읊은 부분이나, <周生傳>에서 작자[權鞞]가 주생을 위로하며 “장부로서 걱정할 일은 공명을 이루지 못할까 함이지, 천

히 이별하는, 처음부터 일반적인 生死 관념의 잣대로 볼 때 결코 완전한 사랑으로 승화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외면적 고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 혼귀를 부르는 최치원의 심경을 담아내기에 詩보다 더 적절한 문학적 장치는 없었으리라.

또 ‘고독한 숙소에서 雲雨之樂을 나눌 情人을 만나고 싶다.’는 직설적인 표현은 전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다. 그만큼 남녀 주인공은 외로운 존재들로, 그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情人을 갈구했으며, 자기 배필이라고 생각되는 상대를 만나면 거리낌 없이 노골적으로 상대를 도발했던 것이다. 이후 서로 갈등 및 교감을 표출하는 데도 삽입시의 등장이 두드러지지만, 운명적인 만남이 처음 이루어지는 대목에서 주고받는 시의 내용은 훨씬 애뜻하고 아름답다.<sup>27)</sup>

『금오신화』를 저작한 김시습의 경우에도 ‘외로움과 窮愁를 떨쳐버리기 위해 유람을 하고 글을 지으며 노래를 불렀다.’고 전한다.<sup>28)</sup> 다음은 <萬福寺 樗蒲記>에서 梁生이 자신의 고독감을 달래며 배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읊은 삽입시이다.<sup>29)</sup>

一樹梨花伴寂寥	한 그루 배꽃나무 외로움 달래며
可憐辜負月明宵	가련하게 지새우는 달 밝은 밤이여.
靑年獨臥孤窓畔	젊은이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에
何處玉人吹鳳簫	어디선가 고운님 통소를 불어주나.

翡翠孤飛不作雙	비취는 짝도 없이 홀로 날아가고
鴛鴦失侶浴晴江	원앙은 짝을 잃고 맑은 강에 노니네.

하에 어찌 또 다른 미인이 없겠는가.”라고 말한 대목을 들 수 있다.

- 27) <최치원>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많은 삽입시로 인해 서사적 긴장감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남녀 주인공의 모든 행위와 심정이 삽입시로써 촉발되고 전달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서정적 완성도가 뛰어나다 할 것이다.
- 28) 金時習, 『梅月堂集』 시집 권1 <窮愁>와 권6 <題金鰲新話> 등 참조.
- 29) 한상현은 <만복사저포기>에서 삽입시의 기능을 請神·娛神·送神의 단계로 논의한 바 있다. (『<만복사저포기>의 삽입시 기능에 대한 무속제의적 고찰』, 『고전산문의 계보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249-286면)

誰家有約敲碁子   누군가 있다면 바둑이나 두련마는  
夜卜燈花愁倚窓   밤새 불 밝힌 창에 기대어 시름하네.<sup>30)</sup>

양생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내도 없이 萬福寺 東房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그런데 마침 봄이 되어 방문 밖 배나무에는 배꽃이 활짝 피어 있고, 게다가 휘영청 밝은 달밤인지라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달뜨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고요한 山寺에 홀로 누워 엇치락뒤치락하며 지새우는 밤은 길기만 하고, 멀리 人家에서 들려올 법한 통소 소리와 바둑 소리를 상상만 해도 마음이 흔들린다.

이처럼 외롭고 간절한 양생의 마음을 알았던지,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한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걱정하느냐?[君欲得好逑, 何憂不遂.]”는 소리가 들린다. 마침내 양생은 만복사 佛像과 저포놀이를 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얻게 되는데, 그녀는 이미 양생의 존재와 소원을 훤히 알고 있으며, 그들은 예정된 만남처럼 익숙하게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 왜적의 횡포 앞에 죽음으로써 정조를 지켰던 그녀를 세상으로 불러낼 수 있었던 건, 외로움 끝에 혼귀마저 감동시킨 양생의 詩가 아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독한 심경을 온전히 담아낸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招魂歌였다.

이렇듯 전기의 남녀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재자가인이지만, 처음부터 외로운 처지의 인물들이다. 게다가 위 작품에서는 이들의 거쳐마저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설정되어, 최치원은 客官에 머물고, 양생도 山寺에서 지내는 처지다. 또 최치원은 홀로 무덤을 찾아갈 만큼, 양생은 불상과 내기에서 여자를 원할 만큼, 심지어 둘 다 결국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귀녀와 사랑에 빠져버린, 절박한 처지에 절대적 고독감을 지닌 인물이었다.

여기서 삽입시는 애초 고독한 존재로 설정된 남녀 주인공들 사이에 서로 욕망하는 마음을 도발시키는 매개로써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은 詩를 통해 운명적 상대를 얻고, 비로소 태생적 고독감을 극복하게 된다. 그런데 전기 작품 안에 보이는 외로움이 청춘 남녀가 배필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육체적 고독이라면, 작품 밖에서 비춰지는 그것은 세상과 화합하지 못한 채 소외된 자의

30) 김시습, <萬福寺樗蒲記>. 상계서 99-100면

심리적 고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작품 속 재자가인이 자기 배필과의 운우 지정을 통해 고독감을 극복했다면, 세상 속 지식인 작가는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저작함으로써 고독감에서 벗어나려 했던 셈이다.

### 3.2. 교감의 표출 - 독점적 존재의 또 다른 자아 찾기

전기에서 일반적인 결연과정을 살펴보면, 남녀 주인공은 서로 만나자마자 심리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육체적 결합에 이른다. 이들은 지극히 외로운 존재였던 만큼 순식간에 지고지순한 사랑에 빠지고 상호 독점적 존재로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에서 등장하는 삽입시는 남녀 주인공의 교감을 통한 또 다른 자아 찾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서도 이들은 자기 내면세계를 시로써 표현하거나 전달하고 있다.<sup>31)</sup>

<崔陟傳>의 경우에는 두 대목에서 삽입시가 쓰이는데, 玉英이 직접 짓고 들려준 시는 崔陟도 경탄할 만큼 뛰어난 내용이다.

옥영이 오래도록 깊이 음미하더니 말하기를, “제가 평소에 부인들이 시를 읊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런 心境에 이르니 자신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드디어 시 한 구절을 읊었다.

王子吹簫月欲低	王子喬가 통소를 부니 달도 지려하는데,
碧天如海露淒淒	푸른 하늘은 바다 같고 이슬마저 서늘하구나.
會須共御青鸞去	모름지기 함께 푸른 난새를 타고 날아가리니,
蓬島烟霞路不迷	蓬萊山에 안개 끼어도 길 헤매지 않으리.

최척은 처음에 아내의 詞藻가 이처럼 뛰어난 줄 몰랐다가, 시를 듣고 크게 놀라 한 번 읊어보고 세 번 감탄하더니, 곧 한 구절을 지어 화답했다.

31) 徐居正이 지은 <月團圓>의 경우, 남녀 주인공의 결합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장황하고 구체적인 반면, 전체 사건의 전개나 삽입시의 기능이 미숙하여 작품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瑤臺漂渺曉紅雲	아득한 瑤臺에는 새벽구름 불그레하고,
吹撤鸞簫曲未終	통소소리 그쳐도 곡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餘響滿空月欲落	여음이 허공에 가득하고 달은 지려는데,
一庭花影動香風	온 뜰에 꽃 그림자 향기로운 바람에 흔들리네.

을기를 마치자, 옥영은 기쁜 마음 그지없었다.<sup>32)</sup>

양가 부모의 반대는 물론 戰亂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최척과 옥영은 어렵사리 혼인을 하고, 萬福寺에 가서 정성스레 기도한 덕분에 첫째 아들[夢釋]을 얻었다. 그리고 늦봄의 청명한 달밤, 훗날리는 꽃향기 속에 술잔을 기울이며 최척은 통소를 불고, 옥영은 餘音을 즐기고 있다. 위 삽입시에는 고난 끝에 행복을 얻은 최척 부부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먼저 옥영의 시를 살펴보면, 王子喬가 부는 듯 아름다운 통소 소리에 밤은 깊어가고, 이제 두 사람은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 날아가는 심경이라 아무리 험한 세상사라도 거뜰히 헤쳐 나갈 수 있을 듯하다. 부부애가 듬뿍 묻어나는 내용이다.

이런 옥영에 비하면, 최척이 지은 시는 敍景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심경을 담아내고 있다. 두 사람이 봄밤을 즐기는 곳을 ‘瑤臺’라 지칭하고, ‘허공에 가득한 여음[餘響滿空]’, ‘지는 달[落月]’, ‘온 뜰에 핀 꽃 그림자[一庭花影]’, ‘향기로운 바람[香風]’ 등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드러낸다. 요컨대 일상에서 얻은 만족감과 서로에게 느끼는 사랑을 詩로 표현한 것이다. 이후 부부는 더욱 사랑이 돈독해져서 서로 ‘知音’이라 부르며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自此之後, 情愛尤篤, 自謂知音, 未嘗一日相離也.]고 하니, 이들의 또 다른 자아 찾기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자기 배필을 찾은 남녀 주인공에게 상대는 한없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애정이 담긴 시를 통해 교감을 표출하며 또 다른 자아를 찾아낸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후 남녀 주인공은 뜻하지 않

32) 趙緯韓, <崔陟傳>. “玉英沈吟良久曰, 妾素惡婦人之吟詩, 而對此清景, 不能自己. 遂咏一絕句曰, 王子吹簫月欲低, 碧天如海露淒淒. 會須共御青鸞去, 蓬島烟霞路不迷. 陟初不知其妻吟咏之若是, 一咏三歎, 卽和其詩曰, 瑤臺漂渺曉紅雲, 吹撤鸞簫曲未終. 餘響滿空月欲落, 一庭花影動香風. 吟罷, 玉英歡喜未洽.” 상계서 429-430면

게 불행한 길을 건너나 전란으로 이별하는 등 내·외적인 갈등상황에 맞닥뜨리고, 이에 굴복하여 죽음을 택하거나 굳건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sup>33)</sup>

<최척전>에서 최척과 옥영은 전란 중에 헤어져 他國을 떠돌다가 安南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sup>34)</sup> 그런데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최척의 통소와 옥영의 시였다.

王子吹簫月欲低	王子喬가 통소를 부니 달도 지려하는데,
碧天如海露淒淒	푸른 하늘은 바다 같고 이슬마저 서늘하구나.
會須共御青鸞去	모름지기 함께 푸른 난새를 타고 날아가리니,
蓬島烟霞路不迷	蓬萊山에 안개 끼어도 길 헤매지 않으리라. <sup>35)</sup>

이 시는 앞서 최척과 옥영이 부부로 살면서 행복과 안녕을 교감하는 대목에서 쓰였다. 당시 옥영은 남편의 통소 소리에 감동하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부부가 함께 할 테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다짐했었다. 種子期가 伯牙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과 음악을 이해하듯이, 이들 부부 또한 상대의 기쁨과 행복을 잘 알 수 있었기에 서로 ‘知音’이라고 불렀던 것이다.<sup>36)</sup>

그런데 다시 등장한 이 삽입시는 전체 서사의 흐름으로 볼 때, 먼저 불린

33) <최척전>에서 최척과 옥영 또한 전란으로 다시 헤어져 생사를 모른 채 중국과 일본에서 지내며, 그 과정에 옥영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위기와 갈등을 겪는다.  
34) <최척전>은 朝鮮·中國·日本·安南 등지를 배경으로 전란에 얽힌 최척 일가의 離散과 再會를 담아낸 작품으로, 『於于野談』에도 <紅桃 이야기>라고 실려 전한다. 필자는 <최척전>에 나타난 동아시아 서사 체험과 인식에 대해 논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채경, 「<崔陟傳>에서의 동아시아 인식-배경과 형상화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18호, 국제언어문학회, 2008. 209-227면; 진재교, 「越境과 敘事 - 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記憶」,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6집, 한국한문학회, 2010. 129-162면

35) 조위한, <최척전>. 상계서 435면

36) 백아와 종자기의 이야기는 ‘知音’ ‘知己之友’ ‘伯牙絕絃’이라는 고사와 더불어 『呂氏春秋』 및 『列子』 「湯問」 편에 보인다. 덧붙여 전기에서는 남녀 간에 돈독한 애정을 표현하는 말로도 쓰인다.

대목에서는 상호 교감을 노래했다면, 다시 불린 대목에서는 재회를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과 멀리 떨어진 안남에서, 최척은 宋佑와 함께 떠돌아다니며 茶를 파는 중국 商船에 있고, 옥영은 頓于와 함께 閩浙 사이를 왕래하며 장사하는 일본 상선에 있었다. 그러나 옥영은 귀에 익은 조선 곡조의 통소 소리를 듣고, 최척은 아내의 목소리로 읊는 自作詩를 듣고도 차마 그 상황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서 반복된 삽입시는 바로 헤어졌던 또 다른 자아를 찾는 데 기여한다. 상호 독점적 존재인 남녀 주인공은 전란으로 인해 잠시 이별하지만, 끊임없이 상대를 그리워하다가 다시 만나게 된다. 즉, 귀신이나 부처 등 神異한 존재가 개입함으로써 벌어지는 초현실적 상황이 아니라,<sup>37)</sup> 독점적 존재의 사랑과 구체적 증거[통소·시]를 통해 확보된 필연적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삽입시는 독점적 존재의 또 다른 자아 찾기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사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며 작품의 개연성을 확보한다.

### 3.3. 갈등의 확대 - 문제적 인물의 장애요인 형상화

전기에서는 이처럼 남녀 주인공에게 갈등상황이 계속되면서, 애초 재자가 인 유형의 일반적 인물은 상호 독점적 존재를 거쳐 또 다른 사랑을 찾아나서는 문제적 인물로 바뀌게 된다. 간혹 남녀 주인공의 어긋난 인연은 곧 당시 작자가 맞닥뜨린 처지와 나란히 놓이고, 현실에서 자기 경험과 생각을 작품에 담아내는 문예적 인물로서 거듭나는 동기마저 내포하고 있다.

다음은 <周生傳>에서 배도가 주생의 마음을 묻고 확인하는 대목이다.

(배도가) 묻기를, “낭군은 지금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라고 하자, 주생은 대답 대신 낭랑하게 시를 읊조렸다.

37) <최척전>에는 長六金佛이 수차례 등장한다. 옥영이 임신을 하는 대목이나 힘든 상황에 좌절하는 대목에서 현몽하여 희망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옥영의 심경을 위로하는 데서 나아가 작품에 복선 역할을 담당한다.

夢入瑤臺彩雲裏    꿈에 오색구름 속 요대에 들어가  
九華帳裏夢仙娥    구화장 안에서 선아를 만났노라.

배도가 불쾌하게 여기며 따져 묻기를, “낭군이 선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라고 하자, 주생은 대답할 말이 없어 계속 시를 읊조렸다.

覺來却喜仙娥在    잠 깨자마자 기쁘게도 선아가 곁에 있으니  
奈此滿堂花月何    이처럼 방안 가득한 꽃과 달을 어찌하리오.

그리고는 배도의 등을 어루만지며, “그대가 곧 나의 선아가 아니겠소?”라고 말하자, 배도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낭군은 저의 선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주생과 배도는 서로 선아와 선랑이라고 불렀다.<sup>38)</sup>

주생은 丞相 부인의 부름을 받고 외출하는 배도를 뒤따라갔다 우연히 仙花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배도가 돌아오기 전에 이불을 끌어안고 자는 척하며 우레처럼 코를 골자,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잠든 주생을 바라보며 서운함을 담아 물었다. 어려서는 함께 장난치며 놀았고, 장성하여 다시 만난 그들은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온 처지다. 따져 묻는 배도에게 주생은 대답 대신 가만히 시를 읊조리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이 배도를 떠나 선화에게 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요대에서 仙娥를 만나는 꿈을 꾸다가, 깨어보니 선아가 곁에 있노라’는 대답을 듣고 배도의 마음은 일순간 누그러진다. 그리고 ‘자신이 선아라면 주생은 仙郎이 아니겠느냐?’며 서로 선아와 선랑이라 부른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느끼는 감정과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교차하고 화합하는 대목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생의 마음속에는 이미 선화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둘러댄 것이다. 따라서 선아와 선랑의 의미는

38) 權輿, <周生傳>. “(桃)曰, 郎君方做何夢. 生應口浪吟曰, 夢入瑤臺彩雲裏, 九華帳裏夢仙娥. 桃不悅, 詰之曰, 所謂仙娥, 是何物耶. 生無言可答, 卽繼吟曰, 覺來却喜仙娥在, 奈此滿堂花月何. 乃撫桃背曰, 爾非吾仙娥耶. 桃笑曰, 然則郎君, 豈非妾仙郎耶. 自此, 相以仙娥仙郎呼之.” 상계서 259-260면

이들에게 同床異夢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건전개와 갈등양상을 고려해서 말하자면, 문제적 인물의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형상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또 이 작품은 최초의 삼각관계 전기 작품인 만큼,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갈등에 주목해 볼 때, 이들은 많은 문제를 내포한 인물이다. 누구보다 외로운 처지에서 상대를 만났지만, 내면적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詩才를 겸비한 그들의 심리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삽입시이다. 특히 남녀 주인공의 삼각구도 속에 문제적 인물의 갈등과 질곡이 서사의 주류를 이루며, 이들의 비극적 情恨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주생이 배도를 찾아간 사이에 선화가 일부러 배도의 시를 지우고 적은 自作詩이다.

窓外疏影明復流	창밖에 성긴 그림자 어른거리고
斜月在高樓	기운 달은 높은 다락에 걸려 있네.
一階竹雲	섬돌 아래 대나무 소리 내어 울고
滿堂梧影	오동나무 그림자 집안에 가득한데,
夜靜人愁	밤은 고요히 시름 짓게 만드누나.

此時蕩子無消息	이러한 때 탕자는 소식도 없이
何處作閑遊	어디서 한가로이 노닐고 있는지.
也應不念	아, 생각말자 잊으려 하건만
離情脉脉	이별의 정한 끊이지 않고 이어져
坐數更籌	앉아서 산가지만 세고 또 세누나. <sup>40)</sup>

39) 이후 주생과 배도의 사이에 선화가 등장하면서 서사구도는 이들의 삼각관계가 중심을 이루며, 배도가 주생에게 지어준 시를 본 선화가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결국 배도의 죽음으로 일단락된다. 그리고 주생이 명나라의 지원군에 동참하여 조선으로 떠나버림으로써 이들의 비극적 사랑도 끝난다. 이러한 서사구도상의 삼각관계와 갈등상황에 주목하여 이들을 문제적 인물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또 이들의 장애요인은 바로 信義를 저버린 주생의 變心이라고 할 수 있다.

40) 권필, <주생전>. 상계서 267면

주생은 선화를 만나면서 배도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도를 오래도록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의심을 받을까 걱정스러워 잠시 배도의 집으로 찾아간다. 그 사이에 선화는 주생의 방에서 시를 몇 편 발견하는데, 바로 예전에 배도가 주생에게 지어 준 것이었다. 선화는 질투심을 참지 못해 그 시를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자작시를 적어 놓는다. 주생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순간이다.

선화는 주생과 배도의 인연이 하룻밤 풋사랑이든가, 아니면 선비와 기생간에 육체적 관계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배도의 시를 읽어 보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게다가 주생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고, 홀로 앉아 두 사람의 밀회를 상상하니 시름만 쌓이는 것이다. 이후 배도가 우연히 선화의 시를 발견하면서 모든 정황을 알게 되고, 세 사람은 모두 장애요인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마음에 병을 얻고 만다.

위 삽입시에는 선화의 심리적 갈등이 섬세하고 곡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이 시는 남녀 주인공의 삼각관계를 부각시키고, 이들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頂點에 놓여 있다. 즉, ‘성긴 그림자[疏影]’, ‘기운 달[斜月]’, ‘깊은 시름[人愁]’, ‘생각 말자[不念]’ 등으로 표현되어 밤새도록 이어지는 ‘이별의 정한[離情]’은 선화에게서 비롯되어 배도에게로 轉移되었다가 주생에게 이르러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다. 우연히 상호 독점적 존재에서 벗어난 주생, 그의 變心으로 인해 애정갈등을 겪게 되는 배도와 선화, 이러한 문제적 인물의 장애요인이 삽입시로 형상화된 것이다.

### 3.4. 文藝趣向의 공유 - 창조적 개인의 서정성 완성

남녀 주인공 사이에 애정을 도발하거나 교감을 가능케 하는 삽입시는, 인물간의 문예취향은 물론 주인공과 작자의 문예취향까지 표현함으로써 독자들마저 이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 특히 초현실적 존재나 공간까지 아울러 시로써 대화하고 공감하며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기도 한다.<sup>41)</sup> 여기서 작자는

41) <雲英傳>에서 金進士가 雲英에게 보낸 편지[書]에 첨부한 시를 보면, 앞에 쓴 편

주인공을 내세워 자기 처지를 반영하며 문예취향을 부각시키니, 결국 삽입시를 통해 서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며 작자의 문학적 역량을 드러내는 동시에 더 나아가 예술성을 확보한다고 하겠다.

『금요신화』에 실린 다섯 편의 전기 작품은 모두 현실적 공간에서 한 발 물러난 인물들의 비극적 만남과 이별을 주제로 담았다. 다음은 <만복사저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귀녀의 情恨이 담긴 시이다.

冥數有限	운명이란 유한하여
慘然將別	슬프게도 이별이오.
願我良人	원하노니 우리 낭군
無或疎闊	멀리하진 마음소서.
哀哀父母	애통하게 우리 부모
不我匹兮	나의 배필 못 지었네.
漠漠九原	아득한 저승에서
心糾結兮	마음에 맺힌다오. <sup>42)</sup>

그렇게 혼귀는 떠나가고, 이튿날 양생은 고기와 술을 갖추어 옛 자취를 찾아가 무덤에서 祭文을 지어 弔喪한다. 그런데 이 제문은 그들의 만남과 結緣 및 이별의 과정을 되새기며 감회에 젖은 양생의 마음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 그가 귀녀와 주고받은 시를 비롯하여 귀녀가 양생에게 지어준 시들에 비하면 서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애정으로 들끓던 그의 마음이 차분히 정리된 데다 제문이라는 형식에 맞춰 지어진 때문이다.

반면, 위 삽입시는 혼귀가 사람[배필]을 만나 이승에서 즐거움을 나누다가 저승으로 돌아갈 시점에 주고받은 것이므로 鬼女の 한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요컨대 어찌 할 수 없는 운명이라 서로 이별하게 된 슬픔과 영원히 편치 않은 마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남녀 주인공의 문예취향은 두 말 할 여지없이 작자의 문학적 감수성에서 나왔으며, 이들이 공유한

지를 압축한 것으로 은유적 표현과 감상적 내용이 두드러진다. 이는 삽입시의 서정적 특징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42)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상계서 111면

문예취향은 감상적인 시를 매개로 하여 결말 부분에서 오롯이 독자에게 전해진다.

김시습은 일찍이 삼각산 重興寺에서 공부하다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책을 태워버리고 중이 되어 방랑의 길을 떠났다. 10여 년 동안 전국을 떠돌다가 경주 남산에 金鰲山室을 짓고 기거하면서 여러 차례 세조의 召命을 받았으나 매번 거절하였으며, 당시 여기서 『금오신화』를 지었다.<sup>43)</sup> 이렇듯 그는 탁월한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하면서도 일생을 方外人으로 살다간 운명의 소유자였다.

위에서 귀녀와 작자를 나란히 놓는다면, 귀녀가 낭군을 만나지 못한 것은 작자가 뜻에 맞는 임금을 만나지 못한 것이며, 귀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게 된 것은 작자가 나라에 충성하지 못한 것이며, 귀녀가 이승을 떠돌다 저승에서도 한스러워하는 것은 작자가 전국을 방랑하며 세상과 부합하지 못한 것과 같다. 곧 작자는 불우한 처지를 假託한 위 삽입시를 통해 문예취향을 시적 화자[鬼女] 내지는 독자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작자의 서정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다음은 <주생전>에서 주생이 작자를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준 시이다.

隻影無憑	외로운 그림자 의지할 곳 없고
離懷難吐	이별의 회한 토로하기 어려운데
歸鴻暗暗連江樹	어둠 속 돌아가는 기러기 강가 나무에 이어지네.
旅窓殘燭已驚心	객장에 희미한 등불 이미 마음 설레는데
可堪更聽黃昏雨	다시 들리는 황혼의 빗소리 어찌 감당하리오.

閨苑雲迷	낭원에는 구름 아득하고
瀛洲海阻	영주는 바다로 막혔는데
玉樓珠箔今何許	옥루의 주렴은 지금 어떠한가.
孤蹤願作水上萍	외로운 발자취 물위의 부평초 되어
一夜流向吳江去	하룻밤에 오강으로 흘러가고 싶구나. <sup>44)</sup>

43) 『금오신화』에서 남녀 주인공이 제일 강조하는 이념은 ‘節義’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작자 김시습의 생애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44) 권필, <주생전> 상계서 279면

전기에서 남녀 주인공과 창조적 개인[작자]이 문예취향을 공유하는 부분은 매우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상은 가끔 작품의 말미에서 작자가 저작 동기나 배경을 밝히는 사이 잠깐 언급되기 때문에 전체 서사의 흐름에 묻혀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생전>에서 보이는 마지막 삽입시는 더욱더 의미가 크다.<sup>45)</sup> 서사 전개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등장인물 주생의 내면을 고스란히 담아냄으로써 예술적 성취도를 높이는데, 그것이 작자의 문예취향과 합치되면서 지금껏 작품 속에 흐르던 서정성을 완성시킨다.<sup>46)</sup>

권필은 19세 때 進士初試에 장원하고 나서 復試에서도 장원하였으나, 글자 하나를 잘못 쓴 탓으로 급제에서 제외되는 비운을 겪었다. 24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宣祖가 龍灣으로 蒙塵하게 되자, 具容과 함께 그 책임을 몰어 李山海와 柳成龍을 처단하라고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정치현실에 불만을 품고 과거에 뜻을 두지 않은 채 江華에서 유생들을 가르치거나 전국을 유랑하면서 詩酒를 일삼았다고 한다.<sup>47)</sup>

<주생전>은 권필이 1593년에 戰禍를 피해 遊歷하던 중,<sup>48)</sup> 松都의 客舍에서 주생을 만나 밤새 筆談으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또 작품 末尾

45) 실제로 위의 시 '踏沙行'은 주생이 작자 권필을 만난 처음에 보여준 것이며, 이 시에서 戀情을 탐지해낸 작자의 권유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다. 그런데 서사전개상 <주생전>의 마지막에 실리게 된 것이다.

46) 박희병 교수는 <주생전>에서 대화나 詩·詞·편지·祭文 등은 대부분 작자의 상상력에 의해 보충된 것으로 보았다. 주생의 이야기는 하나의 소재, 작품 구성의 기본적인 골격을 제공한 셈이고, 그것을 근간으로 작품에 피와 살을 채워 넣은 것은 전적으로 작자의 상상력이라고 하였다. 전개서(1997) 21-22면 참조.

47)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4년(1612) 4월 2일자를 살펴보면, 권필이 임금을 무시하는 시를 지었으므로 국문하고 慶源府로 귀양 보냈는데, 그는 평소 몸이 허약한데다 혹독한 곤장을 맞고 들것에 실려 도성문을 나갔으나 杖毒이 위로 치받쳐 죽었다고 한다. 권필의 詩才와 삶에 대해서는 張維의 『谿谷集』 권6, <石洲集序>에 약술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48) 문학작품은 작가의 생애 및 경험을 반영한다. <최척전>을 지은 趙緯韓 역시 임진왜란 당시 가족사이다 광해군 때 정치적 실의 등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전란속 고난을 자기 아픔으로 내면화하여 <최척전>을 저술하였다. 덧붙여 권필은 조위한 등과 함께 詩社[東岳詩壇]를 조직하여 활동한 바 있다.

에 ‘주생이 보여준 아름다운 시를 읽고 나서 그들의 기이한 만남을 탄식하고 아름다운 기약을 슬퍼하여, 물러나 저술로 남기노라[余已艷其詩詞, 歎奇遇而愴佳期, 退而援筆述之云爾.]’고 자신의 심정을 밝혀 놓았다. 작자는 주생이 배도를 잃고 나서 선화마저 버린 채 세상을 등지듯 명나라 구원병으로 멀리 조선에 온 그의 심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것이리라.

작품 내에서 주생이 배도나 선화와 주고받은 시는 그들 사이에 공유했던 문예취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창조적 개인의 서정성을 심도 있게 투영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특히 위 삽입시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떠나온 주생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예컨대 ‘어둠 속에 돌아가는 기리기[歸鴻暗暗]’, ‘물 위의 부평초[水上萍]’ 등은 주생의 처지로 대변된 작자의 심경을 표현한다. 이처럼 전기에서 삽입시는 작중 인물과 작자의 문예취향을 공유하는 역할로, 창조적 개인의 서정성을 완성하는 의미로 작용한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전기소설 삽입시의 미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껏 전개한 논지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본론의 앞장에서는 전기의 출현 및 전개 양상을 삽입시와 관련하여 대략 살펴보았다. 唐 傳奇 수용 이래 <최치원>에서 출발하여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를 거쳐 임진왜란 이후 <주생전>과 <최척전> 그리고 마지막 <심생전>에 이르는 전개 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뒷장에서는 삽입시의 존재 양상과 미학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기 작품에서 서사전개에 따라 삽입된 시를 ‘도입시·교감시·갈등시[이별시]·결말시’로 나누어 존재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발의 매개, 교감의 표출, 갈등의 확대, 문예취향의 공유 등으로 정리하였다. 또 이러한 존재 양상을 통해 드러난 미학적 의미는 재자가인의 고독감 극복, 독점적 존재의 또 다른 자아 찾기, 문제적 인물의 장애요인 형상화, 창조적 개인의 서정

성 완성 등으로 결론지었다.

전기에서 삽입시는 남녀 주인공이 상대를 도발하여 고독감을 극복하고, 교감을 표출하여 또 다른 자아를 찾으며, 갈등의 확대를 통해 장애요인을 형상하고, 문예취향을 공유하여 서정성을 완성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작자는 전체 서사에 현실을 투영하면서 삽입시를 통해 서정을 가미하여 작품화한다. 그 결과 서사에 서정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서사문학 장르를 출현, 발전시킨 것이다.

본고는 서사와 서정이 어우러진 전기라는 범주 안에서, 애초 서사적 구조라는 한계를 설정하고 삽입시의 서정적인 면모를 고찰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축소되고 시야가 좁아진 감이 없지 않다. 이는 차후에 보충할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으며, 나아가 전기의 글쓰기 방식을 통해 미학적 특질을 고찰하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ABSTRACT]

## Aesthetic meaning of inserted poem in Jeongi

Lee, Chae gyeong

Jeongi appeared the end of silla to the beginning of Goryeo and be popular in Chosun which is typical literature genre in the Tang age. Jeongi was combination of description and lyricism, especially maximizes lyrical effect by inserted poem. However, it can be seen original property but also restriction in viewpoint of writing form. On this account, inserted poem could be degenerate into just ancillary decoration for narrative evolvement. In this manuscript, we judged literary value of Jeongi by analyzing presence aspect of inserted poem and deduction of aesthetic meaning.

As a result, summary for inserted presence aspect and aesthetic meaning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inserted poem contributes overcoming loneliness of wits and beauties as a mediacy for provoking opponents. Second, inserted poem contributes discovering another ego of monopolistic counterpart as a communion expression of protagonist. Third, inserted poem embodies obstacle factors of problematic individual as a subject for expanding conflict between characters. Last, inserted poem completes lyricism of creative individuals as a object sharing literature preference of protagonist. To sum up, inserted poem appears in various aspects, secures innate description literary value by giving various meaning in manuscript.

Key words: Jeongi, inserted poem, provocation, wit and beauty, communion, discovering ego, conflict, obstacle factor, literature preference, lyricism etc.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 김려, 『瀟庭叢書』
- 김시습, 『梅月堂集』
- 서거정, 『太平閑話』
- 성임, 『太平通載』
- 신광한, 『企齋記異』
- 일연, 『三國遺事』

### □ 단행본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 \_\_\_\_\_,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_\_\_\_\_,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 소인호, 『한국 전기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 정환국, 『초기 소설사의 형성 과정과 그 저변』, 소명출판, 2005.

### □ 논문

- 박희병, 「최척전 - 16·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83-106면
- \_\_\_\_\_,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민족문학사연구』 7, 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120-140면
- 윤재민, 「전기소설의 인물 성격」,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53-67면
- 이종복, 「<주생전>의 미학과 그 의미」,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 국문과, 1991. 167-189면
- 이채경, 「<崔陟傳>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식」, 『국제언어문학』 18, 국제언어문학회, 2005. 209-227면
- 이혜순, 「전기소설의 전개」, 『고소설사의 제문제』 (성오 소재영 교수 환력기념논총), 집문당, 1993. 221-232면
-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 5, 한국한문학회, 1980. 89-104면
- 정범진, 「당대 전기의 체제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9. 57-78면

- 정출현, 「고전소설에서의 현실주의 논의 검토 : 15세기 『금오신화』에서 18세기 <김영철전>까지」, 『민족문학사연구』 7, 민족문학사학회, 1992. 104-128면
- \_\_\_\_\_, 「<운영전>의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575-612면
- 정학성, 「전기소설의 문제」,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253-258면
- 정환국, 「16~7세기 동아시아 전란과 애정전기」,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38-65면
- \_\_\_\_\_, 「전기소설 삽입시의 미감」,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192-219면
- 진재교, 「越境과 敍事 - 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記憶」,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129-162면
- 한상현, 「<만복사저포기>의 삽입시 기능에 대한 무속제의적 고찰」, 『고전산문의 계보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249-286면

이 논문은 2016년 11월 7일 접수되어 11월 25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